

OCI, 경남에 태양광발전 무상설치

태양광 발전설비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기업 OCI가 경남지역 초등학교 30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한다.

OCI와 경남교육청은 8월7일 태양광 발전설비 무상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8월6일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이 설치대상 학교를 지정하면 OCI는 2012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3년 동안 유지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며, 9학급 이하의 소규모 농·산·어촌 초등학교가 설치대상이다.

OCI는 전국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주는 솔라 스쿨(Solar School)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2/08/07>